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 ② 시어머니와의 악연을 녹인다

##### 사진 속의 주인공

"이게 누구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A씨가 사진 한 장을 내민다. 사진에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얼굴표정이 매우 어둡고 정그린 듯 한 인상이었다. "글쎄요... 모르는 분인데요." A씨는 웃으며 "정말 모르시겠어요? 이게 바로 저예요. 5년 전 모습이에요." 믿어지지 않았다. "못 알아보시겠지요? 그럴 만도 하지요. 그 때는 죽으려고 절에 왔었으니까요. 죽기 전에 절이라는 데나 한번 가보자 하고 왔더니 까요."

A씨는 말머느리로 결혼하여 딸 둘을 낳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7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다. 그 때부터 험겨운 날들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A씨가 무엇을 해도 못마땅해 했다. 딸만 낳아서 대가 끊겼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남편은 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았다. 딸들 교육에 대해서도 A씨 생각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우겼다. 이리다 에들 교육까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까지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마치 전쟁하는 것 같았다.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살아야하는지 기가 막혔다. 그렇게 한 해 두해가 갔을 때 A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밖에 나가서도 시어머니의 욕하는 목소리가 맴돌았고 악몽까지 꾸게 되었다. 그래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또 마주쳐서 욕을 들어야 했다. A씨는 벗어날 수 없는 사슬에 묶인 것 같았다. 지옥이란 바로 이런 게 지옥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래, 내가 죽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 내가 만든 인연 내가 녹인다

아는 사람을 따라 절에 갈 때 '그래, 여기라도

때문이다. 결국 내 탓이다.' 지금 시어머니와의 악연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다 해도 계속될 뿐이다. 끔찍했다.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으니 내가 변해야만 그 악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부터 A씨는 배운 대로 마음을 바꾸기로 했다. 우선 무슨 욕을 들어도 지나치게 끄덕리지 않는 것부터 했다.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깊이 자리한 부처님 마음이 듣고 있다고 생각했다. 쉽지 않았다. 매일 절에 다니며 참회기도를 하게 되었다. 고통스러웠지만 '내 마음부터' 녹이려고 노력했다. '모든 건 시어머니 탓'이라는 생각에서 '내 잘못'으로 돌렸다. 처음에는 너무 억울했으나 다른 사람들의 체험담을 들으면서 용기가 나고 점차 마음이 바뀌었다. 어떤 인연이었기에 이렇게 욕을 들어야 하는가. 아마 전생에 내가 그 분에게 욕을 많이 했나 보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몇 개월이 흐르자 정말로 시어머니가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다. 조금씩 시어머니도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서로 "미안하다" "최소해요"하던 두 사람은 부둥켜안고 평평 울게 되었다.

##### 업은 바꿀 수 있다

현재 A씨는 밝고 편안한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불행한 며느리로 살면서 달라진 것은 오직 A씨의 마음이고 그에 따른 노력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얼굴 관상이나 수상(手相)까지도 변한다는 말을 실감나게 합니다. 가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 이렇게 사나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씨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스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인과다 업보다 그런 말 붙이지 마라. 모든 것은 고집됨이 없다.'

■ 황수경(동국대 신학과 강사)

### 시어머니 모시게 되면서 '불편한 관계'

우연히 절에 가서 인연·윤희 설명듣고 참회

### "내 속 깊은 곳의 부처님께 맡기니 편안"

한번 가보고 죽자 하는 심정이었다. 본인 이야기기를 털어놓고 가장 놀란 사실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다음 생이라는 게 있어서 또 태어나게 되는데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였다.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라면 이전 생에서도 시어머니를 다른 모습으로 만났을 수도 있었다. '왜 내가 그런 시어머니를 만났느냐.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 바로 내가 그 사람 만날 인연을 지어 놓았기



### 부처님 감사합니다

## 일흔살에 부르는 사모곡 (중)

박을선 부산시 사하구 정림2동

결혼생활 35년 동안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이는 완전 눈의 초점을 잃고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병실을 옮겨 달라고 매달리며 호소했습니다. 수간호사가 병실을 옮겨주더군요. 2인실로 옮기자마자 전신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위급한 와중에 문득 청와대 유영수 여사님께 호소의 글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호소의 글을 올리자 급물살을 탄 듯 그 소식이 전해졌고 병실까지 찾아오신 실무자분들에 의해 경위 조사와 현직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41세, 그이는 51세였습니다. 그 때의 온정, 대한민국 국묘의 가특한 마력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생명의 위기를 감신해 넘기고 완쾌된 몸으로 15년간을 일선 학교장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4남매 모두 대학까지 마치고 했죠. 그러나 그이는 65세 정년을 1년 남기고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갔습니다.

장남은 배를 타는 마도로스입니다. 항상 망망대해에 활주로를 힘차게 그고 국위 향상의 수출 품목을 싣고 나르는 바다의 사나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배에서 떨어진 아들 무사 '가피' 실감 봉사하며 즐겁게 사는데 며느리가...

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부처님 가피를 실감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아들이 "떨어지자 밑에 큰 튜브가 내 몸을 받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떨어지는 자리에 튜브가 있었던 것 역시 인연의 지중함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청난 사고에도 부처님 가피로 살아남 아들은 20년 무사고 경력 기관장으로 망망대해를 힘차게 달리는 엔지니어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에 한 몫 하는 애국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산다는 것은 고(苦)에서 고(苦)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강력한 도전과 인내는 자기를 구할 수 있는 계기와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 저변에는 불교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힘이 깔려있는 것이지요. 이런 뜻하지 않은 불행에서 교묘히 재생의 길을 걷게 하는 인연의 힘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극하셨던 어머니가 발심하셨던 불심의 기운이 남아있는 것이 아닐지 싶습니다.

1989년 지아비가 작고 한 후 큰 아들에게 살림을 내어 주었습니다. 별 탈 없이 잘 살던 아들을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 겨울이 딱칠 때 집안을 하기 위해 배에 포트를 거는 순간 발을 헛디뎠는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옆 건물에는 배의 행렬이 좁아져 있었는데 높이가 5층 아파트 높이에 해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김해공원에 아들을 싣고 가려고 앰블런스도 헬icopter가 대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아들은 떨어져 쓰러진 그 자리에, 얼마인 저는 떨뚱뚱 서 있었습니다.

엄물만을 외웠습니다. 관세음보살만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부처님의 가피 속에, 보살님의 보호 속에 절대 기적은 나에게 있을 것을 확인하는 용기가 스러져가는 것을 부여잡았습니다. 동료에게 얽혀서 나타나는 아들을 본 나는 혼비백산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나에게 좌절의 순간은 절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중얼중얼 엄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촬영이 끝나고 진단을 받았던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그 높이에서 떨어진 발목과 다리에 작은 금이 약간 있을 뿐 다른 것은 이상없이 괜찮다는 소견이 나온 겁니다. 의사말씀이 "내가 병원생활 몇 십년해

무렵인 11월말쯤 며느리가 동생의 사업부도를 막기 위해 시댁에 의논도 없이 집을 저당 잡혀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채무를 크게 남겨 놓은 채 카드빚까지 잔뜩 아들에게 지워놓고 이사 가듯이 집을 몽땅 헐겨 집을 나간 겁니다. 그 연락을 받고 와 보니 손주 남매는 텅 빈 집안에 굴러다니는 먼지 속에서 영영 울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한창 사춘기에 접어드는 중3년생 초등6학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작고 후 봉사활동 강부를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회 안에서 내가 받은 만큼 내 몫을 하고자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혼신을 다해 봉사하며 살았는데 내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이가 없고 울분이 터졌습니다. 남을 돌보느라 내 집안을 돌보지 못한 것 같아 죄스러웠습니다.

그때 내 나이 64세, 노년 고개에 접어들었습니다. 부채 독촉은 빔발치는 듯 했고, 아들이 목숨 던져 일하고 받은 봉급 봉투를 들고 (사조직 은행) 장구 직원에게 몽땅 내 놓고 뒤돌아설 때는 미친 사람처럼 돌변하고 말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계속)



그림: 문병성

### 닌행게니판

#### 불교아카데미 '53도반과 함께'

참예불교재가연대 산하 불교아카데미가 오는 3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 서울 중구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53도반과 함께 떠나는 구법여행'의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강좌엔 불교환경연대 이사장 수경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범륜 스님, 전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 박광서(서강대) 교수, 건국대 문과대학성태웅 교수, 고려대 철학과 조성택 교수, 동국대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 등이 강사로 동참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02)2278-1087

#### 미항사 휴식형 템플스테이

해남 미항사가 매일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새벽 도량성 목탁 소리에 깨어나 부처님 앞에 여물을 올리며 시작되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는 일정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 예불, 참선, 율령, 다담, 산행 및 산책으로 매일 이어지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는 가족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061)533-3521

#### 전등사 불교대학 신·편입생 모집

강화 전등사가 3월 6일까지 전등사 불교대학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불교 초심자 및 인공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불교입문, 불교의 이해와 선행을 교육하는 중급과정, 불교사의 이해를 강의하는 고급과정과 <금강경> 강해 및 포교방법론을 배울 수 있는 정진반이다. 등록금은 교재 및 교육재료비 포함 10만원이다. (032)937-0125

#### 국제포교사학회 영어 강좌 회원 모집

국제포교사학회는 2월 12일~3월 30일 제5기 알기 쉬운 불교영어 강좌 회원을 모집한다. 강좌는 3월 31일~6월 2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예정)에서 진행된다.(02)722-2206

## 2007년도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

과목	일시	개설경전	교수
불교학과(정규,특선 230명)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선사상II 활천승반야경II	김호귀 교수 김형준 교수
근본불교학과(특선,특선 23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산스크리트본 금강경	최봉수 교수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시간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7년 2월 1일 ~3월 8일(목) [서류전형]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 2007년 3월 5일(월), 6일(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7년 3월 8일(목) 오후 4시
- 4. 졸업자격
  -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한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 5. 원서 교부 및 접수
  - 본 대학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3년과정)9월 개강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 <불교정례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사찰음식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 불교학과(20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포교사, 법사과정)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정례문화학과(30명) • 사찰음식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실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2007년 2월 1일 ~3월 6일 입학금 200,000원

전형방법	강의개강일시
서류전형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학과정규반) : 2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교학과주간반) : 2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 포교사과정) : 3월 6일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다도학과, 법사과정) : 3월 6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례문화학과) : 3월 6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미술학과) : 3월 7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문학과) : 3월 8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사찰음식학과) : 3월 21일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 2007학년도 불교의식법사과정(2년) 신입생 모집 불교한글의식교육원

과정	기간	요일	법사	내용
• 토요정규반	2년	매주 토요일(오후 3시~5시40분)	심만준스님, 문종준법사	이론, 실기
• 수요일간반	2년	매주 수요일(오후 7시~9시)	민병홍법사	실기
• 법제반	2년	매주 금요일(오후 3시~5시)	인각스님	실기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30명(2년) • 법제반 30명(2년) • 야간반 20명(2년)	• 한글불교의식희망자 • 포교담당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2007년 3월 10일 토요일 까지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3:00 ~ 5:40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야간반) •매주 금요일 오후 3:00 (법제반)

- 3. 개강일시
  - 2007년 3월 10일(토) 오후 4시30분(정규반)  
7일(수) 오후 7시 (야간반)  
9일(금) 오후 3시 (법제반)
- 4. 원서 교부 및 접수
  -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